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전시회 ‘아사카와 형제가 남긴 길~조선의 자연과 문화, 그리고 사람을 사랑한 노리타카와 다쿠미’ 개최

- 주일한국문화원에서 한국과 일본을 잇는 상징적인 인물인 아사카와 형제의 생애와 산림녹화와 도자기의 가치 발견에 공헌한 활동을 소개

주일한국문화원(원장 박영혜, 이하 문화원)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여 호쿠토시(시장 오시바 구니히코), 호쿠토시교육위원회(교육장 시미즈 노리오), 아사카와 노리타카·다쿠미 형제 자료관(관장 히나타 요시히코, 이하 자료관)과 함께 12월 4일(목)부터 2026년 1월 20일(토)까지 ‘아사카와 형제가 남긴 길 ~ 조선의 자연과 문화, 그리고 사람을 사랑한 두 형제’ 특별기획전을 문화원에서 개최한다.

아사카와 노리타카(淺川伯教, 1884-1964)와 동생 아사카와 다쿠미(淺川巧, 1891-1931)는 조선의 자연과 문화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교류했던 일본인들이다. 두 형제는 일제강점기 조선으로 건너가 한일문화교류의 초석을 다진 인물들로 평가되며 민예 운동가 야나기 무네요시와 함께 1024년 경복궁에 '조선민족미술관'을 설립하여 조선의 공예품을 보존하는데 앞장섰다.

미술교사로 부임한 형 노리타카(伯教)는 조선시대 도자기 연구를 통해 백자의 아름다움과 미적 가치를 재발견하는데 공헌하였다. 동생 다쿠미(巧)는 1914년 조선총독부 임업시험소에서 근무하며 산림 녹화사업과 민예운동을 이끌었다. 특히, 다쿠미는 40세에 요절하면서 조선 땅에 묻히기를 유언하여 망우리 공동묘지에 잠들었다. 묘비에는 "한국의 산과 민예를 사랑하고 한국인의 마음속에 살다 간 일본인, 여기 한국의 흙이 되다"라고 새겨져 있어 이는 이들 형제가 민족을 초월하여 조선과 맺은 깊은 관계를 상징한다.

이번 전시회는 자료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아사카와 형제가 남긴 일기, 스케치, 서간, 도판 등 약 70여 점의 자료를 전시하고 이를 통해, 그들이

“국경을 넘어 사랑한 조선”의 모습을 다각도로 소개한다.

또한 전시 기간 중에는 한일 연구가들의 강연회(12.20)와 아사카와 다쿠미의 일대기와 한국과의 교류를 그린 ‘백자의 사람 : 조선의 흙이 되다’ 영화 상영회(26.1.10)를 개최하여 그들의 활동을 되집어 본다.

박영혜 문화원장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올 해에 한일 교류에 있어 대표적인 인물인 아사카와 형제를 소개할 수 있어 매우 기쁘며, 전시회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문화 교류도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아사카와 형제가 남긴 길’ 행사 개요. 끝.

담당 부서	주일한국문화원	전시담당자	팀 장	하성환 (+81-3-3357-5970)
		홍보담당자	팀 장	조은경 (+81-3-3357-5970)

□ 행사개요

- 행사명 : 아사카와 형제가 남긴 길
~조선의 자연과 문화, 그리고 사람을 사랑한 두 노리타카와 다쿠미~
- 일시 : 2025. 12. 4.(목) - 2026. 1. 20.(화)
- 개막식 : 12.4.(목) 15:00~
- 강연회/영화 상영회 : 12.20.(토) 13:30~ / 2026.1.20.(토) 13:30~
- 장소 : 주일한국문화원
- 주최 : 주일한국문화원, 호쿠토시, 호쿠토시교육위원회, 아사카와 노리타카·다쿠미 형제 자료관
- 주요내용 :
 - 전시회 : 아사카와 노리타카·다쿠미 형제의 생애를 보여주는 자료, 한국과의 인연이 담긴 일기·도자기·스케치 등을 포함한 약 70점 전시
 - 강연회 : 한일교류의 과거·현재·미래(김경목 와세다대학 교수), 아사카와 다쿠미가 전하는 메시지 “자연법으로 돌아가라”(사와야 시게코 아사카와 노리타카·다쿠미 형제 자료관 전 관장)
 - 영화 상영회 : 아사카와 노리타카·다쿠미 형제 자료관 히나다 요시히코 관장이 호쿠토시에서의 형제 기념활동에 대해 해설한 후 ‘백자의 사람 : 조선의 흙이 되다’ 상영
- 전시 홍보물 및 주요 작품



포스터 이미지



아사카와 다쿠미 저 『조선의 소반』



조선 가마터 스케치